

기아차 올 1분기 24% 감소

광주공장 250여 협력업체 후폭풍...지역경제 큰 걱정

광주 경제의 '대들보' 기아차가 본격적인 감산에 들어갔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자동차 판매 위축 때문이다. <관련기사 8면> 기아차는 13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노조를 상대로 한 '경영 현황 설명회'를 갖고 올해 1분기에 광주, 소하리, 화성 등 전 공장의 생산량을 작년 동기보다 24%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일괄 적용할 경우 지난해 1분기 생산량이 8만대 인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 1분기 1만8천여대가 감산될 전망이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현대차에 인수된 지 10년 만에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250여 협력업체로 감산 여파가 이어져 휴업·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아차 최고경영진이 광주 등 3개 공장에 대해 일률 감산을 단행할지, 차종별 국제시장 경쟁력을 감안해 차이를 돌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달 산업수요가 줄어들 점, 올해 2~3월에는 생산

계획량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분기 감산 규모를 정했다"면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인 만큼 감산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일단 1분기에 감산 체제를 이어가고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가며 분기 단위로 생산 운영계획을 잡기로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산업·특근을 아예 없앴고, 뉴카렌스, 쏘울 등을 생산하는 1공장의 작업시간을 기존 주·야간 10시간씩에서 주·야간 6시간씩으로 줄이는 등

생산량을 줄여왔다. 스포티지를 만드는 2공장도 주·야간 각 8시간이던 작업시간을 주·야간 5시간씩으로 단축하는 등 1, 2, 3공장이 새해 들어서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생산량도 평균 1천 300여대에서 1천200대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쏘울 등 소형차 위주의 생산체제가 광주공장의 강점이므로 올해에도 이를 잘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불항 극복 파이팅”

육군 황금박쥐부대가 13일부터 16일까지 담양 일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09년 황금박쥐! 동계 특전캠프' 참가자들이 첫 날 입소식을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여성 57명 등 모두 196명이 참가해 공수지상훈련, 암벽실습 등 체험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정림기자 jwi@kwangju.co.kr

광주고검장 신상규·광주지검장 박영렬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천성관(52) 수원지검장, 대검 중수부장에 이인규(51)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이들과 함께 검찰 요직 '빅4'로 꼽히는 대검 공안부장에는 노환균(52) 울산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상대(50) 법무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신상규 고검장> <박영렬 지검장>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문성우(53) 법무부 차관이 대검 차장에, 명동성

(56)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연수원장에 임명됐고, 이귀남(58) 대구고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이번 인사에서 광주고검장에는 신상규(60) 인천지검장이 승진 발령됐고, 광주지검장에는 박영렬(53) 서울 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프로필 4면> 이준보(56) 광주고검장과 황희철(52) 광주지검장은 각각 대구고검장과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옮긴다. 광주고검 차장 검사에는 이재원(51)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광주지검 차장 검사에는 조한욱(53) 광주고검

차장 검사가 각각 전보 발령됐다. 또 한명관(53) 광주지검 차장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임명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정연한의원
광주 성무지구 소재 5층
062-220-1114

안림
제1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내일 신청접수 마감합니다
제2회 전북, 제주, 광주, 부산, 대전의 강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가 15일 신청접수를 마감합니다. ...
광주일보사는 43회 대회의 흥분과 격정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대회도 더욱 정제된 준비태세를 가사와의 단결과 간담, 가족과 지방, 동료들간의 우애를 다지는 즐거운 순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주일보가 자랑하는 대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일시 : 2009년 3월1일(월) 오전 9시
● 장소 : 광주일보회 경기장 → 남평교
● 중점 : 봉포초, 학포초, 10km, 5km
● 접수마감 : 2009년 1월 15일(목)
●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thon.kwangju.co.kr) 전화 (062) 220-0941
● 주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나주 등 혁신도시에 특목고 우선 설립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729만5천㎡에 조성 중인 광주·전남 공영혁신도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목목적고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시의 정부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권일기자 cki@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목목적고를 지정해 줄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 따라 현재 나주시에 있는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교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도 혁신도시 부지 내에 별도의 자율·특목고 설립이 수월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최권일기자 cki@

www.jeollanam.go.kr
"녹색의 땅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우리 전남쌀이 대한민국 최고의 쌀로 선정되었습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토양의 혜택이 풍성한 친환경 쌀(남해)으로 탄생했다. 수확량도 높고 맛도 좋으며, '국산 쌀의 특색'과 '건강'을 지니고 있습니다. 녹색의 땅 전라남도는 한국 친환경 농산물의 5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www.jeollanam.go.kr